



전국민안전교육진흥원, 회장품 50세트 등 부안군기탁

(사)전국민안전교육진흥원(원장 강길원)은 17일 부안군에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게 전달해 달라며 회장품 5종 세트 50개를 기탁해왔다.

전국민안전교육진흥원은 전북 전주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시민단체이며 지난 2017년 창립해 행정안전부 인가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실시기관으로 생애주기별인전교육(생활안전, 교통안전, 재난안전, 사회기반체계안전, 범죄안전, 보건 안전 등)에 다방면으로 힘쓰고 있는 단체다.

강길원 전국민안전교육진흥원장은 “우리의 작은 정성이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남원소방서, 주천면 의용소방대 미용 봉사

남원소방서(서장 박덕규)는 소속 주천 남녀의용소방대가 주천면 응처미과 하송마을을 찾아 올해 두번째로 어르신 20여명을 대상으로 미용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주천의용소방대는 올해 매월 둘째 주 화요일에 주천면 소재 마을을 방문,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과 취약계층에 대한 염색과 커트, 미용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7월에는 주천면 고기리 내송마을에서 미용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국순덕 여성의용소방대장은 “의용소방대원의 재능기부를 통해 어려울수록 서로 도와가며 함께 상생하는 남원시민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경찰, 지역공동체치안 협의체 회의 개최

남원경찰서(서장 강태호)는 17일 생활안전과장실에서 지역공동체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협의체는 부서별 단편적 판단에 의한 현장조치 미흡 사례를 개선하고 정책 시각지대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 각 기능 간 연결·조정·협업(SC)을 활성화해 종합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구로, 이날 회의에서는 ‘전주교 통성당 주변 범범 순찰 강화’를 위한 기능별 역할을 고민하고 협의체를 통해 조직 내부 공유·협업·분석했으며, 남원교육청과 협조해 도봉성당 내 청소년 비행예방 홍보 등 의 방안이 논의 되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100년의 역사 ‘책 속에’

‘정읍경찰 100년사’ 책자 발간 출판기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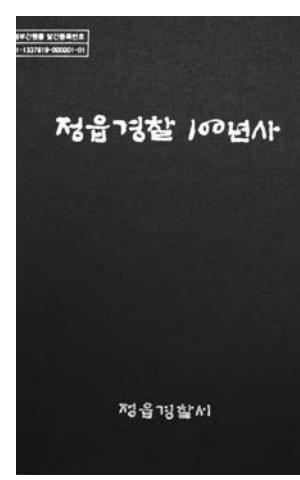
정읍경찰서(서장 김영록)에서는 17일 오전 정읍경찰 100년의 역사를 담은 ‘정읍경찰 100년사’ 책자 발간 기념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서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서장, 정읍시장, 정읍시의장을 비롯해 협력단체장 등 총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읍경찰의 지난 100년 역사를 함께 되짚어 보며 자긍심 높은 정읍경찰상을 정립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출판기념회는 진교훈 전북청장의 축하영상과 함께 책자 제작과정, 책 구성 및 내용소개, 직원 축하 인터뷰 순서로 진행되었다.

축하영상에서 진교훈 전북청장은 “정읍경찰이 그간 정읍의 역사적 토대와 시대적 변화 그리고 정읍시민들의 고리를 함께하면서 성장해왔고 100년사에 이러한 정읍경찰의 발전과 고민이 담겨져 있는 만큼 계속 발전해 나가는 정읍경찰이 되길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경찰 100년사’는 임시정부 경찰 창설을 기회로 정읍경찰의 지난 100년을 고찰, 재정립하여 정읍경찰의 정통성과 자존감을 회복하고 자긍심 높은 정읍경찰상 정립으로 국민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 발간되었



들이 직접 집필해 464페이지 분량을 제작하였다.

/정읍=김대환기자



무주, 이야기와 볼거리가 있는 벽화마을 만들기

무주=덕불 재래시장 활성화 및 노후주택가 개선을 위한 벽화그리기 사업을 지난달부터 주말과 방과후 시간을 활용 (5회)하여 벽화봉사활동이 추진되었다.

더유벽화봉사단(30명)은 전라북도지원봉사센터(이기선 센터장)가 주최하고 무주군지원봉사센터(이강우 이사장)이 주관하여 동아리활동을 운영되었다.

무주읍 마을사업으로 추진되었던 무주읍사무소 앞 벽화를 그렸던 양강모씨의 재능기부로 무주=덕불시장 인근 대교마을 골목 노후주택가를 중심으로 노후벽을 보수 도색하여 옛 시골 정경운 풍경을 벽화에 담았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국가유공자 명패달아드리기 추진

진안군은 6월 ‘효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함양하고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추진한다.

첫 사업으로 17일에는 진안군과 전북동부보훈지청이 전몰군유족회 진안군지회장(송재홍)과 전몰군경미망인회 진안군지회장(오정옥)의 자택을 방문해 명패를 달아드리며 올해 사업의 시작을 가졌다.

군은 올해 연말까지 11개 읍·면 총 102명의 국가유공자의 집에 명패를 달아드릴 예정이다.

‘명패달아드리기’ 사업은 정부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예우의 의미를 담아 추진하며 지난 2019년부터 6.25참전 유공자, 상이군경 등 국가유공자 328명이 대상자로 선정돼 명패를 달았다. /진안=우태민 기자



게 패배하며 1품(2위)을 차지했다.

서남근 장사는 작년 무렵 인대 파열 이후 올해 설날장사 씨름대회를 통해 복귀 이번 대회를 통해 결승 무대를 경험함으로써 백두장사, 천하장사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정읍=김대환기자

단풍미인씨름단, 단오장사씨름대회서 우수한 성과 거둬

정읍시청 단풍미인씨름단이 위더스제약 2021 예천 단오장사씨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정읍의 오향(五香)을 알리는 데 힘을 보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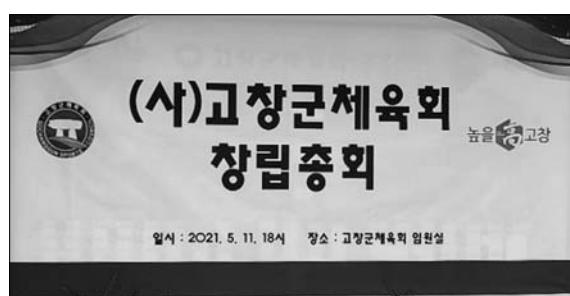
이번 대회에서 단풍미인씨름단은 1품(2위) 2명, 2품(3위) 1명을 배출하며, 18개 팀의 씨름단 중 2품 이내 최다 선수를 배출했다.

생애 첫 장사결정전 결승전에 진출한 금강급 배경진 선수는 결승의 문턱인 4강에서 금강급 트로이가 중 한 명인 최정만 장사(영암군)를 2:0으로 제압했다.

결승전에서 이승호 장사가 상대하며 3:0으로 아쉽게 졌지만, 주특기인 둘째기지를 적극적으로 구사하며 씨름의 묘미를 보여주는 명승부를 연출했다.

2018년 주식장사씨름대회 백두금 장사 출신 서남근 장사는 이번 대회를 통해 생애 2번째 백두장사 타이틀을 노렸다. 하지만 결승전에서 김진 장사(증평군)에게 3:1로 아쉽게

고창군체육회, 특수법인으로 새출발



법인으로서 지위를 얻게 됐다.

오교만 체육회장은 설립 준비부터 등기 완료까지 법인설립을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 및 임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범의 테두리 안에서 독립성은 물론 안정적 재원확보를

기대하며, 더욱 투명한 체육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 /고창=김영식 기자

김제시, 먹거리활력과 농촌일손돕기 구슬땀

김제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촌일손돕기기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먹거리활력과 직원 10여명은 17일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산면 양파 농가를 찾아 양파 캐기 일손 돋기기에 나섰다.

이날 먹거리활력과 직원들은 농가로부터 간단한 교육을 받고 양파 캐기 작업을 하며 구슬땀을 흘렸으며, 농가의 어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등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농가는 “영농철 일손이 절실했던 이 시기에 먹거리활력과 직원분들께서 비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농촌 봉사활동에 참여해주어 고맙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김제=곽노태기자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